

한국BASF, Lysine 생산 잠정중단

8월 군산공장 정기보수 따라 ... 아시아 공급물량 확보 차질 불가피

한국BASF가 2003년 8월 군산 소재 Lysin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할 예정어서 Lysine 공급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2003년 들어 아시아 지역의 Lysine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재고수준이 낮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Lysine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Spread(원료-제품 가격차이)가 장기간 컸고 Lysine 자체의 가격하락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2년 세계시장은 50만톤으로 매출이 약 8억2500만유로에 달했다.

세계 Lysine 생산능력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Ajinomoto가 20만톤, 미국의 ADM(Athur Daniel Midland) 15만톤, CJ의 인도네시아 자회사 CSI 15만톤, 한국BASF 10만톤, 일본 協和發酵 7만톤, 그리고 독일 Degussa 4만5000톤 등 전체 생산능력이 65만톤에 달하고 있다.

Lysine은 동물영양에 필수적인 아미노산으로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동물은 결핍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게 된다. 생명공학의 기술력으로 제조된 일종의 단백질 원료인 Lysine은 농축사료에 첨가되고 있으며, 대두의 대체 역할을 한다.

한국BASF는 자체 생산시설에서 Lysine과 더불어 비타민, 프리믹스, 카로테노이드, 효소, 유기산과 최초의 사료용 항생물질 대체용 성장 촉진제 등으로 구성된 생산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박동환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6/20>